

◆ 特 輯 ◆

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세부추진 계획

1. 수요 기반 확대

1. 1. 96년까지 국내의 금융조건 불균형 해소

1. 1. 1. 외화표시국산기계 구입자금 규모 확대

○ 통상산업부는 95. 7월중에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1조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자대상 범위와 조건을 확정하고 운용 요령을 고시

-용자대상 : 다음에 해당하는 국산기계설비

-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제품
- 기계류 · 부품 · 소재 국산화계획에 의거 고시 · 개발된 품목 및 전략품목
- 자동화 관련설비, 일관생산설비, 중소기업이 92년 이후 개발한 제품

-용자절차 : 생산자단체의 품목확인을 거쳐 취급은행에 용자신청

○ 용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

-1순위 :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

-2순위 :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

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

-3순위 : 대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

1. 1. 2. 외화 대출제도 개편

○ 재정경제원은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도 96년중에 외화 대출이 허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

○ 통상산업부는 자금조성 전망, 외표자금 소진추이 등을 감안하여 용자 대상품목 확대 검토

1. 2.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

- 기계류 생산기업들이 콘소시움 형태로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하되
 - 통상산업부는 취급품목, 재원조달 방법 등 기계류전담 할부금융회사 설립 기준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결정
- 96년중 영업이 가능하도록 금년 하반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재정경제원의 영업인가 추진

1. 3. 기계류 수출지원확대

1. 3. 1. 연불수출자금 확대

- 재정경제원은 수출입은행의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 자금을 95년 28,000억원에서 96년 35,500억원으로 확대

1. 3. 2.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선 지원

- 재정경제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중에서 국산기계류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 우선 지원
 - 전략사업 : TDX · 광케이블 등 통신기계류, 송배전시설 등 전기기계류, 의료기계류, 철도차량 등 수송기계류, 발전설비 등

1. 4. 우수 자본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(추가 발굴 과제)

- 통상산업부는 우수 자본재의 제품 인지도 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매년 우수 자본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전시회를 개최
 - 금년에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기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되 96년부터는 전략품목 위주로 전시 추진
- 우수품질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적극 유도

2. 생산지원 확대

2. 1. 공업발전기금 지원 제도 개선

- 통상산업부는 시제품개발자금의 품목당 지원한도 확대(5억원→20억원)와 지원대상 확대(중소기업→대기업)을 위하여 95. 7월중 기금운용관리요령 및 규정 개정

- 95년 공업발전기금 중 300억원을 전략품목 개발에 추가지원하고 96년에는 시제품개발자금 규모를 2,000억원으로 확대 지원

- 전략품목 개발을 위하여 95년 총 750억원 지원

-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『수요창출지원방안』 수립

2. 2. 전략품목 개발

- 통상산업부는 품목의 특성과 개발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수입과다 품목, 수입대항력강화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품목을 선정

- 수입과다품목 : 연 수입액이 3,000만불을 초과하는 품목

- 수입대항력강화 품목 : 향후 수입선다변화 해제를 대비하여 품질, 성능 개선이 필요한 품목

- 수출전략품목 : 단기간의 육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

- 수요확대예상품목 : 선진국에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

- 『新엔고』 10대 유망업종의 품목

- 품목발굴은 자동차 등 특정수요 대기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진하되

- 기업담당관과 품목담당관을 지정하여 개발대상품목을 발굴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.

- 금년 하반기 개발대상은 7월까지 발굴·고시하고 8월까지 지원대상업체 확정

- 96년 지원대상품목은 95년말까지 발굴·고시하되 상반기 지원대상과 하반기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고시

- 품목개발은 자체개발, 국제공동개발, 기술도입, 해외기술인력 활용,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유도

- 효율적인 개발체제 확립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연구원에 『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』을 설치하여 개발과제 발굴에서 사후평가까지 전문 연구원이 전담하여 관리

2. 3. 신기술 창업기업 금융지원 강화

- 재정경제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국산개발업체에 대한 『기술성』의 배점비율 상향조정(15점→20점)을 위하여 『투자용자취급요강』을 개정
 - 95. 6. 1부터 실시토록 조치

2. 4.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

- 재정경제원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3%에서 5%로 상향조정하고, 기술인력·개발비의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
 - 95. 12월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(제8조 및 제121조)을 개정

2. 5. 표준화기획단 설치

- 공업진흥청은 시본재의 표준화를 위하여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·학·연·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『자본재표준화기획단』 설치
 - 산하에 표준기획반, 규격개발반, 규격보급반을 운영
- 95. 6. 7일 제1차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『자본재표준화 추진대책』 확정
 - 95년 18건 등 2000년까지 총 518건의 표준규격을 제정·보급하고
 - 소요예산은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총당(96~2000년간 총 125억원 예상)
 - 96년은 50개 과제에 대한 표준화 추진(96예산 확보 추진중)
- 표준화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96년부터 지원되는 외화대출 용자대상에 포함

3. 품질보증업무 강화

3. 1. 품질인증센터 설치

3. 1. 1. 품질인증센터 설치

- 공업기술원은 수요가 많은 자동화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우선 실시 하기 위하여 96년부터 『자동화설비시험센터』 건립을 추진
 - 건립비(50억원 예상)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험평가설비 구입비는 예산에서 확보 추진

○ 자본재의 품질인증을 위한 요령을 확정, 95. 7. 1부터 시행

- 95년은 400개 품목, 96년 이후는 매년 800개 품목씩 해외 자본재와 비교 평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

- 사업에 필요한 인력(55명 예상)과 96예산 확보 추진중

○ 공업기술원의 품질인증사업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등 전문 연구기관으로 확대

3. 1. 2. 인증소요비용의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

○ 통상산업부는 95년 하반기중 공업기술원으로 부터 해외 인증에 필요한 해외시장개척기금 신청규모를 검토하여 96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

- 96. 1월 무역협회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

3. 1. 3. 우수품질마크 부여

○ 공업기술원은 품질평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마크로 EM(Excellent Machine, Material, Mechanism) 마크 부여

-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도안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출원중

○ 자동스크린 날염기 등 품질인증 신청이 예상되는 94개 품목에 대한 평가기준(안) 작성을 완료하고

- 95. 7. 1부터 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품질마크를 부여

3. 2. 우수품질마크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

3. 2. 1.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

○ 재정경제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『신용보증규정』을 개정

- 95. 6. 1부터 실시토록 조치

3. 2. 2.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이심사 : (생략)

3. 2. 3. 창업투자회사 투자시 창업지원기금 융자 : (생략)

3. 3.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실시

- 통상산업부는 기계공업진흥회 주관으로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96년 사업기금을 조성하되
 - 우수품질마크 품목 생산기업의 하자보증신청시 기금출연을 의무화 하고 주요기업의 자율적 출연을 유도하여 기금의 50%를 민간자본으로 조성
- 하자보증기금 관리를 위해 기계공업진흥회내 기계공제조합에서 품질인증품목 하자보증 운용요령 등 운영절차와 요령을 7월까지 제정하고 하반기중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96년부터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토록 추진

4. 기술·인력 및 정보지원

4. 1. 공고·전문대·공과대학 정원 지속 확대

- 교육부는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 비율을 95년 14.6%에서 2000년 22%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96~2000년간 24,311억원을 투자 하여 48개 공고 신설, 209개 학급 증설 등 추진
- 95년 이후 전문대학 정원 중 공업계 정원비율을 50%로 유지하고 공업계 정원을 95년 108,000명에서 98년에는 133,000명으로 확대
- 95년 공과대학 정원을 대학교 정원의 56.6%까지 제고하고(94년 56.4%) 97년부터는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하되 공학계 인력의 적정 양성이 가능토록 유도

4. 2. 기능대학 등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전문대 학력 인정

4. 2. 1. 학력인정

- 노동부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
 - (95) 12개대학 → (96) 16개 대학
-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한 전문대 학력 인정을 위해 95. 12월까지 기능대학법 개정 추진
- 통상산업부는 생간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,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의 2년제 기술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산업기술대학 편입 자격 부여 추진

4. 2. 2. 단기직업훈련과정 연수대상 인원 확대

- 노동부는 주·단조, 금형, 열처리, 용접 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 훈련과정의 연수대상 인원 확대를 위하여 산업인력 종합수급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양성계획을 95년 10월말까지 마련하고 96년부터 실시

4. 3. 설계부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

4. 3. 1.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

- 과기처는 제11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(95. 4. 25)에서 결정된 『핵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중장기계획』에 의거 핵심공정 및 공법기술 등 6개 중점 기술개발사업 추진
 - 엔지니어링기술을 2005년까지 선진 7개국권 수준으로 제고
- 엔고에 대응한 대형기계설비 국산화를 위하여 95년부터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기술개발 추진
- 통상산업부는 설계엔지니어링회사 육성방안 수립

4. 3. 2. 설계인력 양성

- 교육부는 기업체 연구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설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원 내에 1년의 단기 설계인력 양성과정(비학위 과정) 설치 허용
 - 장기적으로 전문설계대학원 설립 등 자본재설계인력 양성방안 수립
- 공대 교육과정 중 설계관련 실습시간을 확대하고 학부, 석사과정, 학생의 현장실습 강화
- 통상산업부는 대학별 설계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체 인력의 설계교육 및 최신 정보수집 배포
 - 우선적으로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인력양성(96예산 확보 추진중)
 - 경기도 시화공단에 설립을 추진중인 산업기술대학 내에 설계인력 양성 과정 설치

4. 4. 노후교육기자재 국산대체를 위한 재정지원

- 교육부는 96~2000년간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국립공고와 국립대학의 노후기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고

-실업계 고교, 사립전문대학 및 사립대학의 노후기자재는 재정지원 능력을 감안하여 국산으로 대체 추진

○ 노동부는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노후·부족장비 14,297점 중 수명이 5~10년 이상이 경과된 7,900점을 국산으로 대체하고

-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산대체 및 구입 촉진

○ 공단내 기업의 유휴장비를 교육·훈련기관에 기증하는 방안 강구

4. 5. 기술지도단 구성 및 현장지도 강화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구성된 『원로전문가 지도단』(가칭)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애로기술의 현장 지도 실시

-95년중 퇴직전문가 300명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

-95. 9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부터 지도단 운영

○ 설계·생산 기술분야는 물론 경영관리분야까지 장기계약지도를 실시하되 기업에 취업 연계

4. 6.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

○ 통상산업부는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

-금년 6월까지 외국인의 체류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하반기중 『우수외국인력 유치 방안』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협의, 시행토록 추진

· 유치가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화교 등과 유사한 체류자격 신설을 검토하고,

· 『특별신분증』을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, 금융거래, 의료보험 가입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4. 7.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확보지원 강화

○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종업원수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5. 7. 1부터 시행

○재정경제원은 96년 상반기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

4. 8.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경감

- 재정경제원은 자본재생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비과세
 - 3년~7년 미만 : 월정급여의 10%를 비과세
 - 7년~12년 미만 : 월정급여의 20%를 비과세
 - 12년이상 : 월정급여의 30%를 비과세
- 이를 위하여 95. 12월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추진

4. 9.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

- 통상산업부는 병무청과 협조,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하여 공익군무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폭 전환하고,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 확대,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95. 7월말까지 제도개선을 확정하고 95. 10월중 96년도 병역특례업체 신규 지정
-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의 자본재산업에 대한 배정비율 제고를 위하여 96년내 『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을 위한 추천 기준』 개정

4. 10.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

- 통상산업부는 1차적으로 96년 창원공단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 -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중
- 여타 공단과 대도시지역은 창원공단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

4. 11. 자동화전문인력 양성(추가발굴과제)

-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산설비를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 공급을 추진
- 이를 위해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6개월 실무과정을 집중교육 실시

-96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세부 계획 수립 추진

5. 1. 지자체의 외국인기업유치시 정부지원 확대

5. 1. 1. 미분양공단에 대한 분양가 차액지원

○ 현재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미분양공단을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하는 지자체가 없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

-향후 지자체가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, 낮게 분양한 차액의 50%(신규조성은 30%)를 예산에 반영

5. 1. 2. 미분양공단 임대시 지원

○ 향후 지자체가 공단을 임대할 경우도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, 부지매입가의 50%(신규조성시 30%)를 지원

5. 2.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조건 개선

○ 통상산업부는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 분양가를 조성원가 33만원 보다 저렴한 28만 6천원으로 인하하고(95. 6. 16)

○ 임대료도 당초 예상 임대가격(연간 3,500원 /평)의 45.3%인 연간 1,587원 /평으로 임대계약일로부터 5년간 적용기로 결정(95. 5. 30)

5. 3.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인정

○ 통상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중 『수입선다변화운용요령』을 개정하여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수입선다변화품목(기자재, 부품)의 예외 수입을 허용

5. 4. 우수외국인력 체류상한기간 연장

○ 법무부에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입국후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18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『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』을 개정하여 96. 1부터 시행

5. 5. 대일투자유치사절단 활동 강화

5. 5. 1. 업종별 대일투자 유치단 파견

- 통상산업부는 기계, 전자·정보, 자동차부품의 3개 업종별로 47개 참여업체를 확정하여 세부 파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
- 95. 7. 10~7. 15 『95한국 민·관 합동유치단』을 동경과 오사카에 파견하여 유치활동 전개

5. 5. 2.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 유치

-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 파견방침에 대해서는 한·일 양국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나
- 파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양국간 실무협의중
 - 한국(통상산업부)은 95. 11월 민·관 합동으로 기계, 전자·정보,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조사단 파견 희망
 - 일본은 11월은 APEC 정상회담 관계로 곤란하므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자는 의견

5. 5. 3. 동경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

- 통상산업부는 엔고를 활용한 대일수출 확대를 위하여 일본 동경 『MIPRO 국제전시장』에서 95. 11. 14~11. 17간 한국부품산업 종합 전시회를 개최 추진
 - 전시장 규모 : 2,500m² (전시면적 1,500m²)
 - 참가업체 : 80개사 내외(예정)
- 이를 위하여 집중적인 대업체 홍보를 통해 관련업체의 전시회 참여 유도 및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
 - 95. 6~7: 업체 유치활동 및 참가업체 선정
 - 95. 8~9: 전시장 설계확정 및 시공업체 선정
 - 95. 10: 전시품 수집, 발송